

時論



柳錫春

日 사립대도 개혁 바람

최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대학 개혁, 특히 사립대학의 개혁은 중요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제발전과 함께, 그리고 전통적인 교육 열과 함께 전후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일본의 사립대학들이 최근 밀어닥친 경제불황과 인구변화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난 봄학기 강의를 했던 간사이(關西) 지방의 명문사립인 도시샤(同志社) 대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 이 대학의 개혁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다문화(多文化) 커뮤니케이션'을 전공, 영역으로 하는 새로운 학부의 설치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다. 대학 당국은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다문화 상황'에 적합한 인간상을 교육하기 위해 매년 입학정원 200명, 그러니까 총 정원 800명이 되는 새로운 대형 학부를 2001년부터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대학 총학생회는 이 안이 대학 당국의 밀실행정의 결과라며 반대하고 있

적으로 발표하기 전 총학생회가 개최한 학교당국과의 공개토론회에 학생회 간부가 아닌 일반 학생이 참여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일본의 사립대학이 개혁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이 자리에서 모두 열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당국이 사립대학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 한가지를 놓칠 수는 없다. 다음 아닌 대학의 입학 및 재정과 관련하여 일본은 거의 모든 사립

는 다시 부설 중학교에서 부설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혹은 그 이전 단계인 부설 초등학교 및 부설 유치원까지도 연결이 된다.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종 단계에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이 제도의 공식적인 기능이다.

'寄與 입학' 참고할 만

그러나 이 제도의 숨겨진 기능은 사립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각급의 부설학교 등록금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에 있다. 즉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 동안 다른 학생에 비해 더 많은 등록금을 부담한 학생은 대학 입학에서 일정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기여에 의한 입학을 12년 분할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사학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일본은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학교수·사회학

日 私學의 재정난 해소법

다. 공개질문장의 형식으로 총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총학생회는 이러한 결정이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새로운 투자를 전제하지 않고 단순히 입학정원만 늘리는 방식의 개혁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비판한다.

하지만 총학생회의 이와 같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의 관심은 지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개혁안을 공식

대학이 부설 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나아가서 유치원까지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사립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험이라는 객관적인 방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부설 고등학교 출신의 경우 일본은 졸업생 가운데 상위의 일정한 비율이 무시험으로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명문 사립대가 운영하는 부설 고등학교는 입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